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 구성 목적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발표로 경상북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13개 기관이 배치됨으로써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이 구미에 이전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유치를 갈망하는 38만 시민, 관계 기관 등과 함께 통합된 전략으로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구미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함.

□ 활동기간

- 2005. 7. 14 ~ 유치종료까지

□ 활동대상기관 및 활동범위

- 활동대상기관 : 13개 이전대상기관
 - 도로공사 기능군 : 3개기관
 - 한국도로공사, (주)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농업혁신 기능군 : 4개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종자연구소

- 기타기관 : 6개기관

- 한국전력기술(주), 기상통신소, 조달청중앙구매단, 정통부조달사무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대한법률구조공

○ 활동범위

-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사항 전반
- 구미시 및 구미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활동관련 지원사항 전반

□ 활동경과

○ 2005. 7. 14 : 제103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제1차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회의

-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로 특위구성

- 회의내용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위원장 : 전인철 의원
- 간 사 : 정재화 의원
- 위 원 : 박세채, 손홍섭, 윤종석, 이용수, 이정임, 허 복,
김대호, 김익수, 변우정, 이강덕, 임성수 의원

○ 2005. 7. 26 : 제2차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

- 집행부 현황설명 내용

-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향후 활동방향 및 대응전략
- 공공기관유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 특위 회의 내용

-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전환으로 유치
촉구 활동 요청
- 향후 정부의 최종지침과 구미시공공기관유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활동 촉구
- 이전대상기관의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건의

- 2005. 7. 28 : 집행부 공공기관유치위원회 회의 참석
 - 회의 내용
 - 공공기관 유치위원 구성(위원장 신재학 등 위원 23명)
 - 정적인 가운데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
 - 이전기관의 요구사항 파악 적극 대처
 - 지역포럼 개최 등 효율적인 홍보전략 개발 추진
- 2005. 8. 4 : 집행부와 의 공공기관 유치전략 협의
 - 협의 내용
 - 현수막 게첨(대형2, 중형6, 소형50)
 - 구미유치의 당위성 홍보자료 제작(파워포인트)
 - 시장 서한문 작성 발송 및 설문조사 실시
 - 이전대상기관 및 이전대상기관 노조 방문(8월초)
 - 도입지선정위원회 방문
- 2005. 9월 이후 : 이전대상 공공기관 방문(4회)
 - 기 관 수 : 13개
 - 방문회수 : 4회
 - 내 용 : 별지참조
- 2005. 9. 22 : 제3차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
 - 집행부 현황설명 내용
 - 구미시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반 서류 협의 및 의견청취
 - 구미시 혁신도시후보지 선정관련 성명청취
 - 특위 회의 내용
 - 시장을 단장으로 한 유치방문단 구성 활동 촉구
 - 1, 2 후보지의 인지도를 재정립 홍보 건의
 - 시내주요지점에 홍보현수막 추가 게첨 및 전광판 홍보 시간확대
 - 방문 결과를 종합정리 인센티브제공 적극홍보 건의

- 2005.10. 12 : 제4차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
 - 집행부 현황설명 내용
 - 구미시 혁신도시 입지후보지 신청서 제출에 따른 설명
 - 특위 회의 내용
 -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혁신도시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위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및 활동결의
 - 입지선정위원회 우리시 방문에 맞추어 대대적인 홍보 건의
- 2005.11. 11 : 혁신도시 후보지 현장답사참여
 - 장 소 : 부곡동 (장자터)
 - 참석자 : 윤영길, 전인철, 정재화, 박세채 의원

□ 홍보내용 및 활동 결과내역

- 홍보내용
 - 구미유치의 타당성
 - 타시군과 차별화된 지원(의회지원특위에서 적극적인 약속)
 - 홍보책자 및 파워포인트 영상자료 제공
- 활동결과내역
 - 붙임내역 참조

□ 활동결과

○ 총 평

- 이전대상기관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 지난 6월 24일과 7월 27일 건교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와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의회는 우선 구미시 홍보에 중점을 두기 위해 집행부와 집행기관, 노동조합, 그리고 한국노총구미지부와 공동으로 13개 이전대상기관을 기능군 별로 나누어 4회에 걸쳐 방문 홍보 및 유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이는 타시군과 비교할 때 매우 시의 적절한 활동으로 평가되었음
- 특히 이전 대상기관의 대표자 등과는 면담할 기회조차 찾지 못하던 차에 시청 노동조합의 협조로 이전 대상기관의 노동조합 쪽으로 접근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주효하여 유치홍보활동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평함

-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활동에 대하여

- 지난 7월 24일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13명의 위원으로 본 특위가 구성된 이 후,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여 집행부의 대응전략 및 추진실적등 현황을 청취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시정·질책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독려 하였음.
- 또한, 사안의 중요성 만큼이나 특위 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는 남달랐으며 회의 참석은 물론 대상기관 현지 방문시 새벽부터 출발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평소 의정 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유치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우리 특위는 비록 한정된 일정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알찬 계획과 적극적인 활동으로 구미를 알리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이전 대상 기관의 의중과 구미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 등을 집행부에 사실 그대로 전달함으로서 집행부의 수동적인 태도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동기 부여에 큰 몫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함.

○ 건의요구사항

- 『대한민국 경제를 리더 하는 일류도시 구미, 미래를 위해 준비된 도시』라고 자부하는 구미가 경북도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출발되었다고 사료되어,
- 기회 있을 때마다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대다수의 특위 위원들이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 특히, 정부기본지침, 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방침 확정 후에도 시의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이 부족했던 점, 집행부의 유치위원회 구성 후 단 한차례도 대책회의를 하지 않은 점, 시의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등등의 임시방편적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판단 됨.
- 공공기관 유치는 23개 시군이 사활을 건 일대 혈투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나마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리더쉽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38만 시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유치가 가능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이해득실에 따라 다소 미온적인 활동을 펼쳐 온 것이 결국 유치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따라서 부끄러운 역사도 하나의 역사이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례를 우리 구미역사에 기록으로 영원히 남겨 이러한 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임
- 물론 지난 11월4일 정부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조치발표에 따라 전 행정력을 규제철폐 요구에 집중한 관계로 집행부의 공공기관 유치활동이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다는 점은 동감하나
- 결과적으로 입지선정 대상에서 제외됨은 집행부의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전략부재와 안일한 자세에서 기인된 것으로서 당초 유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해소 될 수 없는 유감사항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강력히 요구함.

활 동 결 과 내 역

구 분	방 문 대 상	방 문 자	면 담 자	요 구 사 항
1차 방문 9. 1(목)	• 한국도로공사	• 9명 -의 회:전인철위원장, 허복위원, 전문위원 등 -집행부:과학경제과장, 업무담당자 -노 조:시노조위원장, 노사대책부장, 한노총 구미지부 부지부장	• 노조부위원장 (안성기) • 이전기확팀 (정진민단장)	• 기능별 분산배치 반대 ⇒13개기관 동반이전 요구 • 주거·교육등 근로환경 우선 및 이전기관 유인책 강구 • 지자체에서 분산배치 반대여론 조성 요망 • 복리후생을 위한 시책 요구 ⇒ 지자체 차원
2차 방문 9. 9(금)	• 도로교통안전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식물검역소 • 국립종자연구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한국건설관리공사	• 8명 -의 회:전인철위원장, 정재화간사, 임성수위원, 전문위원 등 -집행부:업무담당자 -노 조:시노조위원장, 부위원장	• 노조부위원장 (이경석) • 노조부위원장 (서수철) • 노조부위원장 (서수철) • 직장협의회장 (최춘태) • 직장협의회장 (고영학) • 노조위원장 (정성수)	• 13개기관 동반이전 포함 ⇒이전예정(전체)기관 대표 순회계획 • 교통접근성 및 기반시설 우선 희망 • 주거환경 및 자녀교육 우선 • 직원의견 수렴 반영 •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요구 • 시설의 특수성 인정 • 직원복지외 회사영업이익 우선으로 생존적인 문제 ⇒ 경북도 차원의 지원대책 요청

구 분	방 문 대 상	방 문 자	면 담 자	요 구 사 항
3차 방문 9. 14(수)	• 한국전력기술공사 • 조달청중앙구매단 • 정보통신부 조달사무소	• 5명 - 의 회: 전인철위원장, 전문위원 - 집행부: 업무담당자 - 노 조: 시노조위원장, 부위원장	• 노조부위원장 (이경복) • 구매단장 (이영관) • 직장협의회장 (김명중)	• 기능별분산배치 반대, 집단이전 선호 ⇒ 13개기관 동반이전 요구 • 수도권과 차별화 된 주거환경조성 • 자녀교육 우선 및 단독거주자 생활관 건립 • 맞벌이 부부의 지역업체 우선채용 등 시 정책차원의 유인책 필요 • 구미는 자생력이 높은 도시로서 유치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확인
4차 방문 9. 21(수)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更生보호공단 • 기상통신소	• 11명 - 의 회: 전인철위원장, 임성수, 변우정, 김익수 위원 전문위원, 속기사 등 - 집행부: 과학경제과장, 업무담당자 - 노 조: 시노조위원장, 사무국장	• 노조사무국장 (김형규) • 사무국장 (조재연) • 부소장 (김태연)	• 생활의 편리성과 교통이 중요 • 장밋빛 청사진보다 이전기관 직원들의 편에서 실용적인 안이 중요 •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소외지역보다 중심지역 이전 요구 • 기상통신소여건상 시내밀집지역보다 구릉지 야산 등을 원함 ⇒ 부지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음